

젠더이슈와 노인학대

Bridget Penhale
University of East Anglia
b.penhale@uea.ac.uk

지난 10년 동안 노인학대 문제는 국제 및 유럽연합(EU) 수준에서 점점 더 중요해졌다. 이 문제는 세계보건기구(WHO)와 국제노인학대예방네트워크(INPEA)에 의해 중대한 글로벌 문제로 인식되었으며, 전 세계적으로 더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다. 지난 30년 동안 영국에서는 노인에 대한 학대와 방임을 관심이 필요한 사회문제로 인식하는 예가 늘고 있다. 그러나 일부 국가에서는 이러한 인식과 관심이 보다 최근에 생겨나고 있다. 노인학대는 괴로움과 고통, 삶의 질의 저하를 초래하는 인권 침해이며, 일부 상황에서는 그러한 학대가 사망을 가속화하기도 한다. 나아가 노인이 존엄과 자립의 삶을 영위하고, 사회문화생활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EU 기본권 헌장 25조를 위반하는 행위이다. 노인의 대다수는 여성인데, 고령 여성이 고령의 남성보다 학대를 더 많이 경험한다. 이는 인구 비율과 관련된 성별 차이를 감안했을 때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고령 여성에 대한 폭력과 학대를 독립적인 하나의 문제로 간주하는 것이 시의적절하다. 본 글에서는 이러한 여러 문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노인학대 및 방임은 충분한 조사가 필요한 복잡하고 민감한 주제이다. 이러한 상황은 초기에 아동학대와 젊은 여성에 대한 가정 폭력에서도 발견되었다. 노인학대 및 방임을 나타내는 데 사용되는 용어인 노인 학대행위에 대한 탄탄한 이론적 근거를 결정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이는 부분적으로는 표준 정의의 필요성에 대한 합의의 부족에서 비롯되었지만, 주제에 대한 적절한 활용 및 연구 방법을 개발하는 문제와도 관련이 있다 (cf. Ogg and Munn-Giddings 1993; Penhale 1999a).^{1,2}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노인학대에 대한 많은 정의가 개발되었다. 그 가운데 가장 일반적으로 언급되는 정의 중 하나가 WHO와 INPEA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현재 모래시계(Hourglass)로 알려진 영국 조직인 노인 학대에 대한 행동(Action on Elder Abuse · AEA)에서 개발한 정의를 따른 것이다.³ 대부분의 정의 및 관련 유형에는 신체적, 성적, 심리적, 재정적(또는 물질적) 학대 및 방임이 포함된다. 여기에 제도적 학대, 권리 침해, 사회적 학대 등 여러 가지 학대 양상이 추가되었으며, 이들 또한 학대를 이해하는 데 관련된 내용과 여러 정의에 포함되었다. 지표 활용을 통해서만

가혹행위를 진단하기란 어려운 일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학대에 관한 지표 목록도 개발되었다 (O’Keeffe et al. 2007).⁴ 그러나 더 일반적으로는 정의, 가혹행위에 대한 지표, 다양한 학대 및 방임 양상에 대한 논쟁이 여전히 진행 중이다.

또한 많은 국가에서 여전히 학대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이 부족하고, 이로 인해 실무자 뿐만 아니라 일반 대중과 노인들 스스로 학대 및 방임을 감지하고 식별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것도 분명하다. 어떤 유형의 학대가 가장 일반적인지 밝힌 보고서는 조사마다 다르게 나타나며, 국가 차원에서 행한 연구 간에도 일관된 패턴이 발견되지 않고 차이를 보인다. 그러나 미국의 초기 연구는 대부분의 노인 학대 사례가 하나의 사건으로 구성되기보다는 한 가지 패턴의 일부로서 반복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입증했다 (O’Malley et al. 1981).⁵

취약성이라는 용어와 그 사용을 고려하는 데 있어서, 취약한 상태나 가혹행위 및(또는) 위해의 위험에 처한 것으로 보이는 개개인의 소외와 배제 같은 양상뿐만 아니라, 가혹행위 여부를 가리는 데 따르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과 관련된 문제가 있음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현재 취약성은 대체로 상황에 의해 나타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이는 '취약 상태'로 규정할 만한 결과를 초래하는 것은 개인의 특성뿐만 아니라, 취약한 상태를 야기하는 또 다른 상황과 주변 요인간의 상호작용 및 내부 영향에 의한 결과라는 것을 의미한다 (Penhale and Parker 2008).⁶ 취약성은 사회적으로 구성된 것이며, 위에 서술한 것처럼 사회적 모델은 특히 학대에 대한 이해와 관련하여 그 개념화에 가장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흔히 가장 위험에 처한 것으로 간주되는 개인은 '접근하기 어려운' 또는 '거의 들어본 적 없는' 그룹에 속해 있으며 사회의 가장 주변부 삶을 경험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이러한 상황은 신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 웰빙 상태와 관련하여 개인의 건강과 웰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이러한 영향 중 일부는 개인에게 매우 중요할 수 있다. 또한 신체 또는 인지 관련 질병이나 장애, 또는 두 가지 측면을 결합한 더 복잡한 조건으로 인해 장애가 있는 일부 고령자도 '접근하기 어려운' 상태일 수 있음이 분명하다. 이는 그러한 개인의 요구 수준이 기존의 서비스 구조로는 완전히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측면은 개인의 학대 및 폭력 경험과 관련하여 특별한 연관성이 있을 수 있다. 한 지역(또는 전국)의 서비스 구조 및 제공이 이러한 유형의 교차적 이해관계를 만족시키지 못하거나 적절한 방식으로 서비스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공공 정책의 성격, 서비스 제공, 개인과 국가(특히 이 맥락에서는 복지 국가) 사이의 역동적이고 진화하는 관계의 질에 있어서는, 이것이 폭력, 학대, 방임 또는 착취이든

아니든 간에, 그와 같은 가혹행위에 대한 추가 탐구가 필요하다 (O'Keeffe et al. 2007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가혹행위는 이러한 측면을 포괄하는 데 사용되는 보다 일반적인 용어이다).⁷

그 외에도 가족관계와 가족문제와 관련된 일련의 문제들이 있다. 지난 세기 동안, 특히 서구 및 선진국에서 가족 구조와 관련한 상당한 변화가 일어났다. 이러한 변화의 결과로 가족 형태와 패턴이 변경되고 발전되었다. 일례로 일부 국가에서 이혼 및 별거율이 증가하면서 재구성된 가족의 수가 늘어난 사실을 볼 수 있다. 또한, 많은 국가에서 숙박 시설과 가족 생활을 공유하는 다세대 가족의 수가 증가했다. 이는 대부분의 국가가 처한 인구 고령화와 함께 고령인구가 증가하는 전 세계적인 인구통계학적 변화에서 일부 기인했다 (Antonucci 2007).⁸ 성별뿐만 아니라 교육, 소득 및 결혼 여부와 같은 사회-인구학적 요인과 관련하여 상당한 효과가 나타났다. 이와 함께 다른 요인들이 겹쳐 21세기 가족 관계의 역학과 패턴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

현재 노인에 대한 가혹행위는 복잡하고 복합적인 현상으로 보인다. 그러나 기존 증거에 대한 해석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노인 학대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제시된 많은 인과적 요인은 미시적, 개별적 수준 요인에 더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인다. 그 결과 잠재적인 거시적, 구조적 및 사회적 수준의 요인들이 제대로 고려되지 않았으며, 특히 특정 유형의 장애가 있는 노인의 병리학적 속성과 결부시키는 경우도 자주 있는 것 같다. 일례로 보살핌과 지원과 관련된 필요를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는 노인이 스트레스의 원천으로 인식되고, 따라서 그같은 상황에서 일어나는 모든 가혹행위에 대해 (적어도 어느 정도) 노인에게 책임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 경우를 볼 수 있다. 그러한 병리학적 인식은 의존적이고 무력하다는 노인에 대한 기존의 사회적 견해와 태도에 확신을 심어주는데, 이는 도움이 되지 않고 정확하지도 않다. 그러나 장애의 사회적 모델을 사회 전반에 확산시키려는 장기간의 시도에도 불구하고, 노인에 관한 이러한 예는 장애인이 의존적이고 무력하며 결과적으로 자신을 돌보거나 독립적으로 살 수 없다는, 상대적으로 보편적인 기존의 사회적 인식과 유사하다.

일반적으로 노년 여성은 장애, 빈곤 및 폭력에 의해 불균형적으로 영향을 받는다. 일생 동안 고용, 보건 의료 및 교육의 성별 차이는 여성의 신체적, 정신적 웰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이는 노년기에 누적된 영향을 미친다 (세계보건기구, 2015).⁹ 따라서 노인과 장애인 모두 무기력하고 의존적인 사람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크다. 결과적으로 개인은 연령과 장애 간의 교차성으로 인해 취약성이 증가될 수 있다. (Crockett et al. 2018).¹⁰ 위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이러한 유형의 상황적 취약성은 이미 제시한 교차성의 문제로 인해 더욱 복잡해지며, 여기엔 가혹행위에 노출된 상황도 포함된다. 따라서 노인 장애인(특히 여성)은 일상 생활에서 폭력을 경험할 가능성이 크다. 연령, 장애 및 폭력이 서로 연관되어 발생한다는 결합적 시각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젠더 및 인종문제가 교차한다는 사실을 관심사에 유용하게 추가할 수 있다.

그러나 반대로, 노인과 장애인을 의존적이고 무기력한 사람으로 자리매김하는 형태는 학대적이고 유해한 상황으로 치닫는 것을 막는 보호 요인으로 작용하는 다른 여러 측면의 잠재적 역할을 고려하지 않는다. 이러한 보호 요인의 한 가지 예는 이웃과 지역사회가 지원이 필요한 노인을 지원하는 것이다 (Buffel et al. 2009).¹¹

여성에 대한 폭력: 노인 학대 속 젠더 문제를 포함하여

1970년대 이래로, 여성에 대한 폭력이 인권 및 공중 보건 문제이며, 여성의 삶과 건강에 중요하고 실질적이며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는 문제라는 인식의 발전을 보였다. 최근 몇 년 동안, 생애주기의 연령과 단계별로 여성의 폭력 경험을 탐색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연구가 증가하고 있다. 여기에는 고령 여성이 파트너의 학대를 경험하는 정도도 포함되어 있다.

정부 정보 및 데이터 서비스에서 제공한 통계에 따르면, 영국에서는 특정 시점에 상관없이 약 500,000명의 노인이 학대를 당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노인 학대의 주요 희생자는 만성 질환이나 장애가 있는 고령 여성이다. 최근 Women's Aid (England)와 Counting Dead Women project에서 발간한 여성살해에 관한 연간 보고서에 따르면, 여성 살해 사건에 있어서 60세 이상의 여성 대부분이 배우자나 아들/손자 등 남성 가족 구성원에 의해 살해된 것으로 나타났다 (Long et al. 2018).¹² 2008년에서 2018년까지 10년 동안 보고된 여성 살해 사건에 대한 추가 분석 결과, 278명의 60세 이상 고령 여성이 살해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고령 여성 중 38%는 배우자나 파트너에 의해, 24%는 아들, 14%는 지인, 13%는 낯선 사람이나 다수의 낯선 사람에 의해 살해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사망의 약 2/3는 친밀한 파트너 또는 가족 폭력과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Roberts 2021).¹³

가정 폭력 및/또는 성폭력을 경험하는 고령 여성은 도움을 청하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이용 가능한 지원책에 접근하는 방법을 모를 수 있다(Penhale 2021).¹⁴ 일반적으로 그들은 범죄를 신고하거나 그들에게 도움되는 서비스를 이용할 가능성이 적다. (Beaulaurier et al. 2008; Blood

2004; Safe Lives 2016).^{15 16 17} 게다가 고령 여성은 정보를 공개하고 도움을 청하는 데 특별한 장애물에 직면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도 이 부분들이 적절히 인정되지 않고, 충분히 이해되거나 제공되지도 않았다. 전 세계적으로 고령화되는 인구의 상황적 배경을 감안할 때, 보건의료 및 복지 서비스 전문가는 젠더 기반 폭력과 학대를 식별하고, 또한 고령 여성의 특정 경험, 필요 및 권리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고령 여성들에게 가해지는 젠더 기반 폭력과 학대는 복지, 돌봄 및 건강에 대한 (이해할 수 있는) 관점과 지향점을 가진 의료 및 사회 복지 제공자들의 눈에 띄지 않을 수 있다. 여성이 늙고 '나이가 들면서' 그들의 젠더가 무시되거나 감춰지는 것이 눈에 띈다. 결론적으로, 고령 여성의 젠더 기반 폭력 경험은 시의적절한 방식으로 인식되지도 않고 대응되지 않을 수도 있다. 따라서 고령 여성에 있어서는 연령에 민감하고 성별 차이를 고려한 전문적인 조치가 필요한 것은 분명하다. (Crockett et al. 2018).¹⁸

고령 여성에 대한 폭력은 종종 돌봄과 의존성의 맥락에서만 고려되지만 (Bows 2019),¹⁹ 여러 고찰에 따르면 고령 여성에 대한 폭력은 주로 친밀한 파트너에 의해 자행된다. (see for example, Penhale 2003).²⁰ 비록 여러 연구에서 친밀한 파트너에 의한 폭력(Intimate Partner Violence · IPV) 발생이 젊은 여성과 비교해 고령 여성에게서 더 낮게 나타났지만 (Burazeri et al. 2005; Helweg-Larsen et al. 2011),^{21 22} 이러한 연구는 주로 소규모로 진행되고, 연구 설계, 폭력 측정 및 연령 범주 측면에서 적용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비교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게다가 1992년의 전국 여성 폭력 조사 (Greenfeld et al. 1998),²³ 1993년 및 1999년에 실시된 미국의 국가 범죄 피해자 조사 (Rennison 2001)²⁴ 외에 국가를 대표할 만한 데이터를 집계한 연구는 거의 없다. Yon과 그의 동료들은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고령 여성을 대상으로 노인 학대에 대한 체계적인 검토를 거쳐 메타 분석을 수행한 바 있는데, 강력한 증거는 제시하지 못했지만, 특히 저개발 및 중진국들에서 상당한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 세계 여성 6명 중 1명가량이 학대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Yon et al. 2019).²⁵ 또한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고령 여성에 대한 친밀한 파트너의 폭력은 종종 그들이 인지한 취약성과 파트너에 대한 의존성의 맥락에서 고려된다 (취약성에 대한 이전 설명 참조). 더욱이, 이러한 관점은 친밀한 파트너의 폭력과 관련해 고령 여성과 젊은 여성 간에 상당히 유사한 요소가 있음을 보여준 여러 소규모 연구에 의해 반박되었다 (for example, see Phillips 2000).²⁶

상당수의 연구에서 친밀한 파트너의 폭력이 특히 고령 여성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입증되었다 (Fisher and Regan 2006; Fisher et al. 2011; Mouton 2003).²⁷

^{28 29} 그러한 폭력이 관계의 역사를 통해 발생한 폭력의 연속이든, 노년기에 '새롭게' 시작된

것이든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고령 여성에 대한 친밀한 파트너의 폭력을 다루는 것은 그 자체로 중요할 뿐만 아니라, 건강, 웰빙 및 신체 기능에 있어서도 몇 가지 분명한 의미가 있다 (Stockl and Penhale 2015).³⁰ 친밀한 파트너의 폭력을 경험하는 고령 여성과 관련하여 적절하고 효과적인 개입책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그 발생과 위험 요인에 대해 더 많이 알 필요가 있다.

유럽의 맥락에서 살펴본 몇몇 대표적인 연구는 국가적 수준에서 친밀한 파트너 폭력의 현황과 그와 관련된 요인을 조사했다 (Hagemann- White 2001).³¹ 불행히도 이러한 설문 조사 중 50세 이상의 여성이 포함된 것은 소수에 불과했다 (Burazeri et al. 2005; Helweg-Larsen et al. 2011; Papadakaki et al. 2009; Zorrilla et al. 2010).^{32 33 34 35} 가임 연령이 지난 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령 범주와 관련하여 이러한 연구 간에는 큰 차이가 있다. 때때로 이것들은 전혀 제공되지 않으며, 연구에는 49세 이상의 여성이 포함되지도 않았다. 이런 연구들의 전반적인 결과는 친밀한 파트너 폭력의 평생 유병률이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감소한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연령 집단에 상관없이 유사한(동일하지는 않더라도) 관련 요소들이 있으리라는 암묵적인 전제 하에 고령 여성이 친밀한 파트너 폭력의 위험성이 커지는 상황에 놓일 것이라는 결과를 구체적으로 조사한 연구는 하나도 없었다. 게다가 유럽 노인 학대 현황에 대한 두 건의 최근 연구는 노년의 친밀한 파트너 폭력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오히려 노인 학대 및 고령 여성에 대한 학대의 광범위한 맥락에 초점을 맞췄다 (Soares et al. 2010; Luoma et al. 2011).^{36 37} 고령 여성에 대한 친밀한 파트너 폭력에 대한 또 다른 유럽 연구에서는 학대 현황이나 그와 관련된 요인을 조사하지 않고 (Nagele et al. 2011),³⁸ 오히려 고령 여성이 청하는 도움과 반응에 대한 인식만을 살폈다. 이러한 이유로, 주요하게 남은 공백은 세대를 막론하거나 특별히 중·노년기에 초점을 맞춰, 친밀한 파트너 폭력과 관련된 위험 요인과 유병률을 비교할 수 있는 대표적인 인구 기반 데이터를 만드는 일이다 (Rennison and Rand 2003).³⁹

WHO가 2021년 3월에 발간한 여성에 대한 폭력 현황에 관한 보고서는 2018년 전 세계적으로 수행된 설문 조사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였다. 그러나 보고서는 50세 이상의 여성에 대한 데이터가 부족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다시 말하지만 이 조사에는 49세 이하의 여성만 포함됐다). 고령 여성의 폭력 경험을 포착하지 못한 것이 이 보고서의 주요 공백/도전거리 중 하나로 생각된다 (WHO 2021).⁴⁰

노인 학대에 관한 문헌과 과거 20년에 걸쳐 개발된 연구 기반 증거를 살펴보면, 노인 학대 상황에서 남성은 여성보다 학대를 할 가능성이 크고, 여성은 남성보다 학대를 당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일반적인 이해였다 (Brossoie and Roberto 2015).⁴¹ 이는 남자를 학대자/가해자로, 여자를 피학대자/피해자로 딱지 붙이는 어떠한 제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러한 고려가 그야말로 수치에 기초할 때, 이는 합리적으로 분명한 발견처럼 보인다. 그러나 훨씬 더 폭넓은 관점에서 학대를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인식의 변화는 학대의 사회적 맥락에 대한 이해를 필요로 한다. 예를 들어 일부 여성이 폭력적으로 행동하고 일부 남성이 학대를 경험할 가능성에 공감할 필요도 있다 (Soares et al. 2010; Teaster et al. 2007).^{42 43} 또한 가정 폭력 상황으로 간주되는 것과 관련하여 어떤 형태의 (노인) 학대를 경험하고 알리는 고령 남성의 비율이 학대를 신고하는 젊은 성인 남성의 비율보다 높을 수 있다 (Soares et al. 2010).⁴⁴

비록 고령의 남녀 모두 학대를 경험하는 것이 분명하더라도, 고령 여성 인구가 더 많다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노인 학대 피해자의 대다수는 여성이다 (Brossoie and Roberto 2015).⁴⁵ 게다가 국제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현황 데이터가 부족하기 때문에, 전체 수치로 보든 다양한 하위 유형과 관련해 살펴보면 노인 학대 비율의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긴 해도 가정 내 학대가 도시와 농촌 지역을 가리지 않고 모든 인종 및 사회경제적 집단에서 발생한다고 어느 정도 확실하게 말할 수 있다 (Acierno et al. 2010).⁴⁶ 그러나 노인에 대한 성적 학대와 관련해서 보자면, 그러한 학대를 경험하는 사람들의 대다수가 여성이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Bows 2018; Teaster and Roberto 2004).^{47 48} 평생 동안 여성은 친밀한 파트너로부터 폭력을 경험하고, 성폭력의 피해자가 되고, 가난하게 살거나, 장애가 생기거나, 교육 및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저하될 가능성이 남성보다 더 크다. 나이가 들수록 이러한 차이가 가져오는 지속적이고 누적된 효과가 증가한다 (Crockett et al. 2018; Mears 2015).^{49 50} 이민자 사회의 개인, 장애를 가진 고령 여성, 레즈비언, 양성애자, 성전환 여성을 포함한 유색인종의 고령 여성은 훨씬 더 크고 예외적인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다 (Mears 2015).⁵¹ 태도, 정책 또는 자원으로 인한 장벽이 복합적으로 더해져 교차적이고 낙인 찍히는 방식으로 고령 여성의 상황적 취약성을 악화시킬 수 있다. (Choi et al. 2017).⁵²

가혹행위에 연루된 사람들은 남성, 여성, 파트너, 성인 자녀 또는 기타 친척이 될 수도 있다. 다른 형태의 가족 폭력에서 볼 수 있듯이 학대자의 대다수는 남성이다. 가해자가 피해자와 함께 보내는 시간을 감안하여 학대의 개연성을 살펴본다면, 남성은 학대 행위, 특히 신체적 폭력을 가하는 행위에 연루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진다 (Finkelhor 1983).⁵³ 일반적으로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노인 학대는 여성 학대자, 종종 간병인(아마도 딸)과 나이든 부모 사이에서 발생하는 문제로 여겨져 왔다. 다수의 초기 노인 학대 연구에 따르면 학대자는 여성일 가능성이 더 크며

대개 친척이었다 (Eastman 1984).⁵⁴ 그러나 신체적 학대와 방임 행위(및/또는 태만) 등을 구분해 그런 데이터를 추가로 분석한 결과, 남성은 신체적 폭력에, 여성은 방임 행위에 연루될 가능성이 더 크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Miller and Dodder 1989; Sengstock 1991).^{55 56} 여러 연구에서 방임 범주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았음을 감안할 때, 이는 가해자의 대다수가 여성인 것으로 나타난 이유를 잘 설명해준다.

학대자와 피학대자의 특성에 관한 연구는 젠더와 관련하여 다소 모순된 결과를 제공했다. 미국 성인 보호 서비스(US Adult Protective Services)의 통계에 따르면 대부분의 희생자가 여성(68%)이며(Tatara 1993),⁵⁷ 영국의 학대 현황 연구에서는 고령 여성이 가혹행위를 당하는 비율이 고령 남성보다 두 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8% vs 1.1%) (O’Keeffe et al. 2007).⁵⁸ 영국과 비교하는 방법론으로 아일랜드에서 수행된 학대 현황 연구 역시 고령 여성(2.4%)이 고령 남성(1.9%)보다 전년도에 가혹행위 경험을 알릴 가능성이 더 크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었다 (Naughton et al. 2010).⁵⁹ 미국 보스턴에서 전화통화를 통해 실시한 초기 학대 현황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65%가 여성이었지만, 피해자 대다수는 남성(52%)이었다 (Pillemer and Finkelhor 1988).⁶⁰ 연구에서 남성의 피해율은 5.1%로, 여성(2.5%)의 두 배였지만, 노년인구는 불균형적으로 여성이 많았다. 그러나 여성은 남성보다 더 심각한 학대와 부상을 당하는 경향이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Swan et al. 2008).⁶¹ 이것은 고령 여성이 부상에 대한 치료를 더 필요로 하고 다른 형태의 지원이 필요할 가능성이 크며, 당국 및 서비스 기관의 관심을 끌 가능성이 더 크다는 것도 의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여성이 남성보다 가혹행위를 신고할 가능성이 더 크거나, 증거가 제한적이더라도 도움까지 청할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이미 지적인 바와 같이 남성은 여성보다 신체적으로 더 폭력적일 수 있으며, 더 심각하고 심한 폭력을 저지를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노인 학대가 노년기에 배우자 간에 많이 발생하고 남성 학대자의 주요 학대 형태가 여성을 향한 신체적 폭력이라면, 치료가 필요할 수 있다. 그리고 이는 남성보다 여성이 더 학대당하는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심리적 또는 소극적으로 방임하는 형태로 여성이 저지르는 학대 행위는 남성 피해자에 대한 치료나 외부 신고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전문가나 당국의 주목을 끌지 못할 수도 있다. 또한 여기에는 특정 연령 집단과 관련된 요인도 있을 수 있다. 영국의 학대 현황 연구 (O’Keeffe et al. 2007),⁶²에서는 가장 나이 많은 집단(85세 이상)의 경우, 남성이 비슷한 나이의 여성(주로 방임을 보고함)보다 더 학대를 당한다고 보고했다. 이 연령대의 고령 남성들이 가장 많이 얘기한 학대는 재정적 학대였다. 그러나 고령의 남성 응답자들이 예를 들어 신체적

폭력보다 재정적 학대를 신고하는 것이 더 쉽거나 덜 낙인 찍힌 것으로 인식했을 가능성이 있다. 젊은 여성에게서 발견되는 것처럼, 노년의 성적 학대는 매우 젠더화 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주로 여성이었고, 학대하는 사람들은 남성이었다 (Bows 2019).⁶³

노인 학대에 대해 이미 인정되고 확립된 위험 요소 중 하나가 타인과 함께 사는 것이다. 남성이 노년기에 다른 사람과 함께 살 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에 고령 남성이 해를 입을 위험이 증가하고, 어쩌면 고령 남성 학대를 더 많이 야기할 수 있다. 이 지점에서 학대를 경험한 고령 남성의 요구를 고려한 Kosberg (1998)⁶⁴ 와 Pritchard (2001)⁶⁵의 초기 중대한 연구에 주목하는 게 중요하다. 학대자의 특성 연구와 일정 부분 맥이 통하는데 피해자와 오랫동안 함께 살아온 누군가가 학대를 한다는 것이다. 가해자로 연루된 사람은 친족인 경우가 가장 많으며, 다른 친척이라기보다 성인 자녀, 배우자, 손자, 형제자매들이 일반적이었다. 미국에서 Pillemer 와 Finkelhor (1988)⁶⁶ 가 행한 첫번째 학대 현황 연구에서는 학대가 주로 노년기 배우자 사이에서 일어나며, 비가족 구성원에 의한 학대는 비교적 드물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러한 결과는 이후의 학대 현황 연구에서 반복되었다 (for example O’Keeffe et al. 2007; Luoma et al. 2011).^{67 68} 보다 최근의 연구에 따르면, 재정적 학대와 같은 특정 형태의 가혹행위의 경우 파트너가 아닌 다른 가족 구성원이 범할 가능성이 더 클 수 있다. (O’Keeffe et al. 2007; Naughton et al. 2010).^{69 70}

다양한 상황을 제시한 Kosberg (1998)⁷¹에 따르면 과거 관계 속에서 힘을 남용한 경우 복수 또는 '보복'의 동기가 생길 수 있다고 한다. 이런 상황, 즉 그들의 가족사 초기 시점에 남성으로부터 학대를 경험한 여성이나 어린이/자녀들은 말년, 특히 남성이 돌봄과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복수의 한 형태로 학대 행위를 할 기회를 엿볼 수 있다. 스웨덴에서 간병인의 경험을 조사한 Grafstrom 등 (1992)⁷²의 연구에서는 이러한 유형의 역학 관계가 발생한다는 몇 가지 증거를 찾아냈다 (see also Volmert and Lindland 2016).⁷³ 그러나 Jack (1994)⁷⁴은 여성 대 여성 및 여성 대 남성 학대를 비정상적이고 차별적인 사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교류 관계의 맥락 속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학대에서 젠더의 잠재적 효과는 여러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여기에는 고령 여성이 더 많고, 말년에 홀로 사는 사람이 남성보다 여성이 더 많다는 사실에 의해 발생하는 학대 유형이 포함된다 (Arber and Ginn 1995).⁷⁵ 그러나 사람들이 함께 살 때 학대가 발생할 위험이 더 크다. 또한 가혹행위를 구성하는 다양한 유형의 학대 역시 그러한 상황에서 젠더의 역할을 명확히 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노인에 대한 가혹행위와 젠더의 잠재적인 역할을 고려할 때 인식해야 할 중요한 요소가 더 있다. 발생하는 상황과 관련된 공동체적, 사회적, 관계적, 문화적 맥락을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Penhale and Parker 2008).⁷⁶ 학대와 가혹행위는 사회적으로 구성된 현상이므로 개인이 상황에 부여한 의미와 이해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Biggs et al. 1995).⁷⁷ 구조적 맥락은 가혹행위를 용인하는 동시에 사회 내에서 허용되는 행위처럼 인식되는 배경이다. 이 정도로 연령차별은 노인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권력관계의 '주요 범주'처럼 보일 것이다 (Penhale et al. 2000).⁷⁸

그러나 젠더와 장애와 같은 여타의 교차적 관심사도 핵심적인 관련성이 있으므로 여기에서 적절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또한 젠더 및 권력 관계 모두와 관련된 문제에 대한 지식과 이해를 확장해야 하며 (Brandl 2000; Brandl et al. 2003; Cooper and Crockett 2015; Crockett et al. 2015; Whittaker 1995),^{79 80 81 82 83} 이와 함께 학대 및 학대 상황의 전개와 지속성 측면에서 이들의 상대적 역할을 알아야 한다. 연령, 장애 및 폭력 간의 동시 발생 및 상호관계에 대한 관심과 우려도 증가하고 있으며, 나아가 젠더와 인종이 교차하는 지점도 여기에 유용하게 추가될 수 있다. 연령, 장애, 젠더 및 폭력의 연관성을 통합하는 교차 접근방식이 분명히 필요하다 (Crockett et al. 2018).⁸⁴ 또한 생애주기적 관점에서 볼 때 지금까지 인생의 후반부에 대한 관심이 적었고, 이를 시정할 필요가 있는 게 분명하다.

더욱이, 노인 가혹행위를 구성하는 광범위한 스펙트럼 속에는 학대의 징후로 간주되어야 하는 다양한 행동과 행위(행위의 결여 및 실행 실패 포함)가 있는 게 분명하다. 발생할 수 있는 가혹행위의 범위를 살필 때는 관련된 가족과 대인 관계 및 폭력뿐만 아니라, 제도적 형태의 가혹행위 같은 다른 측면도 중요하며 반드시 이를 고려해야 하는 것도 분명하다 (Stanley et al. 1999).⁸⁵ 또한 그러한 피해의 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가장 큰 개인이 고령의 장애 여성이며, 그에 따라 보호시설에 수용될 가능성이 더 크다는 사실을 인식할 때 이것이 특별한 불안요소가 될 수 있음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언급한 바와 같이, 노인에 대한 가혹행위를 단순히 가족 및 대인 관계의 맥락에서만 보아서는 안 된다. 권력 관계의 유동적 성격과 가부장적 가정의 지속적인 만연상황 또한 건강 및 사회적 돌봄의 맥락에서 학대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보호 책임'(Stevenson and Parsloe 1993)⁸⁶ 을 맡은 사회 및 보건 의료 기관이 자신에게 돌봄 의무가 있는 개인을 본의 아니게 또는 노골적으로 학대할 수도 있다 (Penhale and Parker 2008).⁸⁷ 복지 및 공식 돌봄 제공현황을 분석한

Jack (1994)⁸⁸은 의존성, 권력 및 통제가 돌봄 관계 속에 통합되어 그 상호(본질과 범위는 불균등하지만) 의존성, 무력함 및 위법성이 공식(유급) 간병인에 의한 학대를 빈번하게 초래하고 유지하는 역할을 하는 사실을 제시했다.

젠더 측면을 보다 적절하게 살피려 한 초기 시도에서 Whittaker는 다양한 유형의 학대를 '가정 폭력'이나 '간병인 스트레스'의 예로 보는 것은 젠더의 영향을 모호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했다 (Whittaker 1995).⁸⁹ '노인 학대'의 일반적인 개념을 더 검토하고 관계에서 권력의 본질을 더 강조해야 한다. 여기엔 젠더에 대한 추가 고려가 필요할 것이다. 페미니스트 분석에 따르면, 남성에 의한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통제 측면에서 여성에 대한 억압도 인정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통제의 요소는 종종 여성에 대한 남성의 폭력 상황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양상의 하나가 관계 속에서 벌어지는 파트너 간의 학대이다 (Whalen 1996).⁹⁰ 결과적으로 그러한 분석이 노인 학대, 더 구체적으로 고령 여성에 대한 학대와 연결 지어 어느 정도 관련이 있는지는 여전히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

학대 상황에 대한 가능한 대응과 잠재적인 서비스 제공과 관련, 학대를 경험한 고령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 피난처 또는 "안전 주택" 활용과 관련된 문제를 고려하는 것도 유용할 수 있다. 영국의 "구타당한 여성 피난처"(원래 이름 그대로)의 주요 제공자인 Women's Aid는 연령에 관계없이 학대의 대상이 된 여성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연령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그러나 여러 모로 다르지만 서로 연관되었다는 이유 때문에 고령의 여성이 그런 자원을 선택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대를 경험한 고령 여성을 위해 특별히 안전 주택을 개발하는 것은 매우 유용할 수 있으며, 분명 이것은 학대당한 노인을 위한 적절한 자원으로서, 명백히 우세한 제도적 돌봄 모델에서 볼 수 있는 것과는 다른 일련의 가정에 기초할 것이다 (Cabness 1989; Vinton 1992).^{91 92} 이 분야에서 일부 진전이 있었음이 최근 몇 년 동안 보고돼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현재 영국에서 이를 이용할 수 있는 50세 이상의 여성에게 적어도 하나의 피난처가 제공되고 있다.

향후 방향

추가 연구가 필요한 핵심 영역은 가정 폭력과 고령 여성 학대 사이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보다 일반적인 조건에서 파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여성이 평생 동안 경험할 수 있는 의존성과 취약성의 문제와 함께 이러한 문제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떻게 변할 수 있는지 탐구해야 한다.

또한 왜 특정 사람들, 이를 테면 여성, 치매 환자 및 기타 정신적, 육체적으로 건강상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더 학대를 당하고 해를 입을 위험이 더 크게 나타나는지, 그 이유를 더 찾아볼 필요가 있다 (Penhale 1999b).⁹³ 특히, 개인의 취약성과 위험 수준을 높이거나 야기하는 것으로 보이는 관련 요소를 파악하면, 학대 상황을 해결하고 심지어 예방하기 위한 지속적인 탐색에 유용할 것이다.

고령 및 젊은 여성 학대를 다루기 위한 선별 도구의 사용과 관련하여 수행된 몇 가지 유용한 연구가 있었다 (Ejaz et al. 2001).⁹⁴ 가혹행위에 대한 대응과 관련하여 그러한 작업은 다른 관련 영역 및 다른 평가 형식으로 확장될 수 있다. 선별 및 평가에 있어서 이러한 초기 단계를 고려하는 것 외에도, 인생의 여러 단계에서 여성이 경험하는 학대 상황에 어느 정도 개입할지 이에 대한 접근 방식을 공유하거나, 상황을 구별하고 상대적 유용성을 고려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예를 들어, 대피소 활용에 관한 행동 연구를 수행할 수 있다.

게다가 가정에서 일어나는 가혹행위와 제도적 환경 속에서 발생하는 학대 사이의 연관성에 대한 추가 검토도 관련이 있을 것 같다. 학대가 일어날 수 있는 환경에 대한 추가 조사도 유용할 것 같다. 관계 내 그리고 다양한 상황에서 권력 관계의 특성과 효과를 탐구하는 연구는 아마도 가정 및 제도적 환경 사이에서 흥미로운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또한 학대의 주요 역학에 대한 지식과 이해를 더할 것이다.

또한 특정 유형의 가혹행위에는 어떤 식의 특별 개입이 가장 좋다고 명확히 말할 수 있을 만큼, 어떤 개입 전략이 가장 최선이자 효과적인지 알려진 바가 충분치 않은 것이 분명해 보인다. 이는 특히 고령의 장애 여성에 대한 학대 연구처럼 아직 연구되지 않은 영역과 관련될 가능성이 크다. 분명히, 그러한 작업에는 학대의 영향에 대한 견해의 통합과 함께 자신의 상황을 대하는 개인의 관점도 포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앞으로 이러한 부분에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할 것 같다. 연령, 장애, 젠더 및 학대 간의 교차점은 근본적인 문제이다. 여기에는 이러한 교차점에 해당하는 이들의 요구 사항과 상황을 충족시키는 데 어떤 관점(들), 개입 및 예방 전략이 가장 도움이 될 수 있는지 결정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마지막으로, 많은 노인이 경험하는 빈곤과 억압처럼 학대에 수반되는 사회적, 구조적 요소에 관한 추가 연구는 가치 있을 것이다. 가혹행위를 당하는 상황에서 젠더, 권력, 장애 및 민족성 같은 측면에 관한 심층 탐구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Crockett et al. 2018).⁹⁵

이는 그러한 측면이 학대 상황을 영속화하고 악화시키거나 심지어 해결을 방해하기까지 하는 정도를 설정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특히 적절할 것이다. 또한, 노인(특히 고령 여성)에 대한 억압과 젊은 여성이나 장애인에 대한 억압 사이의 연관성에 관한 조사는 대인 관계 폭력의 다양한 측면을 폭넓게 고려하는 데에도 가치가 있다. 여기에는 그룹 간에 공통적으로 공유되는 영역과 특정 형태의 폭력 및 학대와 상당히 구별되는 영역도 포함된다. 앞으로 이러한 가혹행위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노력 속에는 다양한 유형의 학대와 폭력에 대한 더 많은 이해와 지식이 필요하다는 것은 분명하다.

결론

이 분야를 발전시키려면 몇 가지 다른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 일반 대중, 전문가, 특히 노인층의 가혹행위에 대한 관심과 인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Penhale 2008).⁹⁶ 학대와 방임, 인과적 요인과 결과의 상호 관련된 측면, 그러한 상황에서 젠더와 권력 관계의 상호 작용에 대한 지식과 이해를 개발하기 위한 추가 작업이 필요하다. 또한 필요한 지식과 관련된 이론 및 개념적 프레임워크의 더 많은 개발은 매우 중요하다 (Ploeg et al. 2009; Podnieks et al. 2010).^{97 98} 그러한 프레임워크는 젠더적 관점을 적절하게 포함해야 한다. 또한 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점도 통합되어야 한다. 모든 노인이 학대, 방임 및 착취로부터 자유로운 말년을 살도록 돕겠다는 목표를 달성하려면, 현재 있거나 앞으로 나올 수 있는 형태의 다양하고 만연한 가혹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더 많은 연구, 개발 및 국제 협력이 필요하다. 성평등 문제와 고령 여성의 필요에 대한 관심은 이러한 노력을 지원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노인, 특히 학대와 방임 상황을 경험한 사람들의 요구를 그러한 발전의 중심에 놓는 것이 중요하다. 여기에 대다수가 여성인, 가장 소외되고 배제된 사람들이 포함될 필요가 있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¹ Ogg, J., & Munn-Giddings, C. (1993). Researching elder abuse. *Ageing and Society*, 13(3), 389–413.

² Penhale, B. (1999a). Researching elder abuse: Lessons for practice. In P. Slater & M. Eastman (Eds.), *Elder abuse: Critical issues in policy and practice* (pp. 1–23). London: Age Concern Books.

³ Action on Elder Abuse (AEA). (1995). New definition of Elder abuse. *AEA Bulletin*, 5, 11.

⁴ O’Keeffe, M., Hills, A., Doyle, M., McCreadie, C., Scholes, S., Constantine, R., Tinker, A., Manthorpe, J., Biggs, S., & Erens, B. (2007). *The UK study of abuse and neglect of older people*. London: National Centre for Social Research.

⁵ O’Malley, H., Segars, H., & Perez, R. (1981). *Elder abuse in Massachusetts: A survey of professionals and paraprofessionals*. Boston: Legal Research and Services for the Elderly.

⁶ Penhale, B., & Parker, J. (2008). *Working with Vulnerable Adults*. London: Routledge.

⁷ O’Keeffe, M. et al. (2007).

⁸ Antonucci, T. (2007). *Elder abuse and family structures*. Presentation at third world elder abuse awareness day conference. Geneva: 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 ⁹ World Health Organization. (2015). *World report on ageing and health*. Geneva: 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 ¹⁰ Crockett, C., Cooper, B., & Brandl, B. (2018). Intersectional stigma and late-life intimate partner and sexual violence: How social workers can bolster safety and healing for older survivors. *British Journal of Social Work*, 48(4), 1000–1013.
- ¹¹ Buffel, T., Verte, D., De Donder, L., Dury, S., & De Witte, N. (2009). *Conceptualizing the neighbourhood as a dynamic social space: Recognizing older people as actors in placemaking*. Lisbon: European Sociological Association conference.
- ¹² Long, J., Harper, K., Harvey, H., & Ingala-Smith, K. (2018). *The Femicide census: 2017 findings. Annual report on UK Femicides 2017*. Bristol: Women's Aid.
- ¹³ Roberts, Y. (2021). End femicide: 278 dead – the hidden scandal of older women killed by men | Crime | The Guardian (7 March 2021) Available from <https://theguardian.co.uk> (last accessed: April 2021)
- ¹⁴ Penhale, B. (2021) Older women as the Invisible Victims of Intimate Partner Violence: Findings from Two European Research Projects. In: Bradbury-Jones, C. and Isham, L. (2021) (Eds) *Gender-based Violence: An Essential Textbook for Health and Care Professionals*, London: Springer
- ¹⁵ Beaulaurier, R., Seff, L., & Newman, F. (2008). Barriers to help seeking for older women who experienced intimate partner violence: A descriptive model. *Journal of Women & Aging*, 20(3–4), 231–248.
- ¹⁶ Blood, I. (2004). *Older women and domestic violence*. London: Help the Aged/HACT. Available from: http://www.ageuk.org.uk/documents/en-gb/for-professionals/communities-and-inclusion/id2382_2_older_women_and_domestic_violence_summary_2004_pro.pdf
- ¹⁷ Safe Lives. (2016). *Safer later lives: Older people and domestic abuse*. London: Safe Lives.
- ¹⁸ Crockett, C., Cooper, B., & Brandl, B. (2018). Intersectional stigma and late-life intimate partner and sexual violence: How social workers can bolster safety and healing for older survivors. *British Journal of Social Work*, 48(4), 1000–1013.
- ¹⁹ Bows, H. (2019). *Sexual Violence Against Older People*. London: Routledge.
- ²⁰ Penhale, B. (2003). Older women, domestic violence and elder abuse: A review of commonalities, differences and shared approaches. *Journal of Elder Abuse & Neglect*, 15(3–4), 163–183.
- ²¹ Burazeri, G., Roshi, E., Jewkes, R., Jordan, S., Bjegovic, V., & Laaser, U. (2005). Factors associated with spousal physical violence in Albania: Cross sectional study. *BMJ*, 331(7510), 197–201.
- ²² Helweg-Larsen, K., Sorensen, J., Bronnum-Hansen, H., & Kruse, M. (2011). Risk factors for violence exposure and attributable healthcare costs: Results from the Danish national health interview surveys. *Scandinavian Journal of Public Health*, 39(1), 10.
- ²³ Greenfeld, L., Rand, M., Craven, D., Klaus, P., Perkins, C., Ringel, C., Warchol, C., & Fox, J. (1998). *Violence by Intimates*. Washington, DC: Bureau of Justice Statistics Factbook, UD. Department of Justice.
- ²⁴ Rennison, C. (2001). *Intimate partner violence and age of victim, 1993–99*. Washington, DC: Bureau of Justice Statistics, US Department of Justice.
- ²⁵ Yon, Y., Mikton, C., Gassoumis, Z., & Wilber, K. (2019). The prevalence of self-reported elder abuse among older women in community settings: A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is. *Trauma, Violence & Abuse*, 20(2), 245–259.
- ²⁶ Phillips, L. (2000). Domestic violence and aging women. *Geriatric Nursing*, 21(4), 188–193.
- ²⁷ Fisher, B., & Regan, S. (2006). The extent and frequency of abuse in the lives of older women and their relationship with health outcomes. *The Gerontologist*, 46(2), 200–209.
- ²⁸ Fisher, B., Zink, T., & Regan, S. (2011). Abuses against older women: Prevalence and health effects.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26(2), 254–268.
- ²⁹ Mouton, C. (2003). Intimate partner violence and health status among older women. *Violence Against Women*, 9(12), 1465–1477.
- ³⁰ Stockl, H., & Penhale, B. (2015). Intimate partner violence and its association with physical and mental health symptoms among older women in Germany.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30(17), 3089–3111.
- ³¹ Hagemann-White, C. (2001). European research on the prevalence of violence against women. *Violence Against Women*, 7(7), 732–759.

- ³² Burazeri, G. et al. (2005). Factors associated with spousal physical violence in Albania: Cross sectional study.
- ³³ Helweg-Larsen, K. et al. (2011). Risk factors for violence exposure and attributable healthcare costs: Results from the Danish national health interview surveys.
- ³⁴ Papadakaki, M., Tzamalouka, G. S., Chatzifotiou, S., & Chliaoutakis, J. (2009). Seeking for risk factors of Intimate Partner Violence (IPV) in a Greek National Sample: The role of self-esteem.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24(5), 732–750.
- ³⁵ Zorrilla, B., Pires, M., Lasheras, L., Morant, C., Seoane, L., Sanchez, L. M., Galán, I., Aguirre, R., Ramírez, R., & Durbán, M. (2010). Intimate partner violence: Last year prevalence and association with socio-economic factors among women in Madrid, Spain. *European Journal of Public Health*, 20(2), 169–175.
- ³⁶ Soares, J., Barros, H., Torres-Gonzalez, F., Ioannidi-Kappolo, E., Lamura, G., Lindert, J., de Dios- Luna, J., Macassa, G., Melchiorre, M.-G., & Stankunas, M. (2010). *Abuse and Health Among Elderly in Europe*. Kaunas: Lituianian University of Health Sciences Press.
- ³⁷ Luoma, M.-L., Koivusilta, M., Lang, G., Enzenhofer, E., De Donder, L., Verte, D., Reingarde, J., Tamutiene, I., Ferreira-Alves, J., Santos, A., & Penhale, B. (2011). *Prevalence study of abuse and violence against older women: Results of a multi-cultural survey conducted in Austria, Belgium, Finland, Lithuania and Portugal*. Helsinki: THL (Department of Health and Welfare).
- ³⁸ Nagele, B., Bohm, U., Toth, O., & Goergen, T. (2011). *Intimate partner violence and older women: Summary report*. Gottingen: ZOOM-prospektive.
- ³⁹ Rennison, C., & Rand, M. (2003). Nonlethal intimate partner violence against women. *Violence Against Women*, 9(12), 1417–1428.
- ⁴⁰ World Health Organization. (2021). *Factsheet on Violence Against Women*. Geneva: 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Available from: <https://www.who.int/news-room/fact-sheets/detail/violence-against-women> (dated March 2021, last accessed April 2021)
- ⁴¹ Brossoie, N., & Roberto, K. (2015). Community professionals' response to intimate partner violence against rural older women. *Journal of Elder Abuse & Neglect*, 27(4–5), 470–488.
- ⁴² Soares, J. et al. (2010).
- ⁴³ Teaster, P., Ramsey-Klawnsnik, H., Mendiondo, M., Cecil, K., & Tooms, M. (2007). From behind the shadows: A profile of the sexual abuse of older men residing in nursing homes. *Journal of Elder Abuse & Neglect*, 19(1–2), 29–45.
- ⁴⁴ Soares, J. et al. (2010).
- ⁴⁵ Brossoie, N., & Roberto, K. (2015). Community professionals' response to intimate partner violence against rural older women.
- ⁴⁶ Acierno, R., Hernandez-Tejada, M., Muzzy, W., & Steve, K. (2010). *National elder mistreatment study*. U.S. Department of Justice: National Institute of Justice.
- ⁴⁷ Bows, H. (2018). Sexual violence against older people: A review of the empirical literature. *Trauma, Violence & Abuse*, 19(5), 567–583.
- ⁴⁸ Teaster, P., & Roberto, K. (2004). Sexual abuse of older adults: APS cases and outcomes. *Gerontologist*, 44(6), 788–796.
- ⁴⁹ Crockett, C. et al. (2018).
- ⁵⁰ Mears, J. (2015). Violence against older women: Activism, social justice and social change. *Journal of Elder Abuse & Neglect*, 27(4–5), 500–513.
- ⁵¹ Mears, J. (2015). Violence against older women: Activism, social justice and social change.
- ⁵² Choi, M., Brownell, P., & Moldovan, S. (2017). International movement to promote human rights of older women with a focus on violence and abuse against older women. *International Social Work*, 60(1), 170–181.
- ⁵³ Finkelhor, D. (1983). Common features of family abuse. In D. Finkelhor, R. Gelles, G. Hotaling, & M. Straus (Eds.), *The dark side of families: Current family violence research* (pp. 17–28). Newbury Park: Sage.
- ⁵⁴ Eastman, M. (1984). *Old age abuse*. Portsmouth: Age Concern.
- ⁵⁵ Miller, R. B., & Dodder, R. A. (1989). The abused: Abuser dyad; elder abuse in the state of Florida. In R. Filinson & S. Ingman (Eds.), *Elder abuse: Practice and policy* (pp. 166–178). New York: Human Sciences Press.
- ⁵⁶ Sengstock, M. (1991). Sex and gender implications in elder abuse. *Journal of Women & Aging*, 3(2), 25–43.
- ⁵⁷ Tatara, T. (1993). Finding the nature and scope of domestic elder abuse with state aggregate data. *Journal of*

- Elder Abuse & Neglect*, 5(4), 35–58.
- ⁵⁸ O’Keeffe, M. et al. (2007).
- ⁵⁹ Naughton, C., Drennan, J., Treacy, M., Lafferty, A., Lyons, I., Phelan, A., Quin, S., O’Loughlin, A., & Delaney, L. (2010). *Abuse and neglect of older people in Ireland*. Dublin: National Centre for the Protection of Older People.
- ⁶⁰ Pillemer, K. A., & Finkelhor, D. (1988). The prevalence of elder abuse: A random sample survey. *Gerontologist*, 28(1), 51–57.
- ⁶¹ Swan, S., Gambone, L., Caldwell, J., Sullivan, T., & Snow, D. (2008). A review of research on Women’s use of violence with male intimate partners. *Violence and Victims*, 23(3), 301–314.
- ⁶² O’Keeffe, M. et al. (2007).
- ⁶³ Bows, H. (2019). *Sexual Violence Against Older People*. London: Routledge.
- ⁶⁴ Kosberg, J. (1998). Abuse of elderly men. *Journal of Elder Abuse & Neglect*, 9(3), 69–88.
- ⁶⁵ Pritchard, J. (2001). *Male Victims of Elder Abuse*, London: Jessica Kingsley Publishers.
- ⁶⁶ Pillemer, K. A., & Finkelhor, D. (1988). The prevalence of elder abuse: A random sample survey.
- ⁶⁷ O’Keeffe, M. et al. (2007). *The UK study of abuse and neglect of older people*.
- ⁶⁸ Luoma, M.-L. et al. (2011). *Prevalence study of abuse and violence against older women: Results of a multi-cultural survey conducted in Austria, Belgium, Finland, Lithuania and Portugal*.
- ⁶⁹ O’Keeffe, M. et al. (2007). *The UK study of abuse and neglect of older people*.
- ⁷⁰ Naughton, C., Drennan, J., Treacy, M., Lafferty, A., Lyons, I., Phelan, A., Quin, S., O’Loughlin, A., & Delaney, L. (2010). *Abuse and neglect of older people in Ireland*. Dublin: National Centre for the Protection of Older People.
- ⁷¹ Kosberg, J. (1998).
- ⁷² Grafstrom, M., Norberg, A., & Wimblad, B. (1992). Abuse is in the eye of the beholder. Reports by family members about abuse of demented persons in home care: A total population-based study. *Scandinavian Journal of Social Medicine*, 21(4), 247–255.
- ⁷³ Volmert, A., & Lindland, E. (2016). *You only pray that somebody would step in: Mapping the gaps between expert and public understandings of elder abuse in America*. Washington, DC: Frameworks Institute.
- ⁷⁴ Jack, R. (1994). Dependence, power and violation: Gender issues in the abuse of elderly people by formal carers. In M. Eastman (Ed.), *Old age abuse* (pp. 77–92). London: Chapman Hall.
- ⁷⁵ Arber, S., & Ginn, J. (Eds.). (1995). *Connecting gender and ageing: Sociological approaches to gender relations in later life*. Buckingham: Open University Press.
- ⁷⁶ Penhale, B., & Parker, J. (2008). *Working with vulnerable adults*.
- ⁷⁷ Biggs, S., Kingston, P. A., & Phillipson, C. (1995). *Elder Abuse in Perspective*. Buckingham: Open University Press.
- ⁷⁸ Penhale, B., Parker, J., & Kingston, P. (2000). *Elder abuse: Approaches to working with violence*. Birmingham: Venture Press.
- ⁷⁹ Brandl, B. (2000). Power and control: Understanding domestic abuse in later life. *Generations*, 24(2), 39–45.
- ⁸⁰ Brandl, B., Hebert, M., Rozwadowski, J., & Spangler, D. (2003 December). Feeling safe, feeling strong: Support groups for older abused women, *Violence Against Women*, 9(12), 1490–1503.
- ⁸¹ Cooper, B., & Crockett, C. (2015). Gender-based violence and HIV across the life course: Adopting a sexual rights framework to include older women. *Reproductive Health Matters*, 23(46), 56–61.
- ⁸² Crockett, C., Brandl, B., & Dabby, F. (2015). Survivors in the margins: The invisibility of violence against older women. *Journal of Elder Abuse & Neglect*, 27(4–5), 291–302.
- ⁸³ Whittaker, T. (1995). Violence, gender and elder abuse: Towards a feminist analysis and practice. *Journal of Gender Studies*, 4(1), 35–45.
- ⁸⁴ Crockett, C. et al. (2018). Intersectional stigma and late-life intimate partner and sexual violence: How social workers can bolster safety and healing for older survivors.
- ⁸⁵ Stanley, N., Manthorpe, J., & Penhale, B. (1999). *Institutional Abuse: Perspectives Across the Lifecourse*. London: Routledge.
- ⁸⁶ Stevenson, O., & Parsloe, P. (1993). *Community care and empowerment*. York: Joseph Rowntree Foundation.
- ⁸⁷ Penhale, B., & Parker, J. (2008). *Working with vulnerable adults*.
- ⁸⁸ Jack, R. (1994).

-
- ⁸⁹ Whittaker, T. (1995). Violence, gender and elder abuse: Towards a feminist analysis and practice.
- ⁹⁰ Whalen, M. (1996). *Counseling to end violence against women: A subversive model*. Thousand Oaks: Sage.
- ⁹¹ Cabness, J. (1989). The emergency shelter: A model for building the self-esteem of abused elders. *Journal of Elder Abuse & Neglect*, 1(2), 71–82.
- ⁹² Vinton, L. (1992). Battered Women’s shelters and older women: The Florida experience. *Journal of Family Violence*, 7(1), 63–72.
- ⁹³ Penhale, B. (1999b). Bruises on the soul: Older women, domestic violence and elder abuse. *Journal of Elder Abuse & Neglect*, 11(1), 1–22.
- ⁹⁴ Ejaz, F., Bass, D., Anetzberger, G., & Nagpaul, K. (2001). Evaluating the Ohio elder abuse and domestic violence in late life screening tools and referral protocol. *Journal of Elder Abuse & Neglect*, 13(2), 39–58.
- ⁹⁵ Crockett, C., Cooper, B., & Brandl, B. (2018). Intersectional stigma and late-life intimate partner and sexual violence: How social workers can bolster safety and healing for older survivors.
- ⁹⁶ Penhale, B. (2008). Elder abuse in the UK. *Journal of Elder Abuse & Neglect*, 20(2), 151–168.
- ⁹⁷ Ploeg, J., Fear, J., Hutchinson, B., Macmillan, H., & Bolan, G. (2009). A systematic review of interventions for elder abuse. *Journal of Elder Abuse & Neglect*, 21, 187–210.
- ⁹⁸ Podnieks, E., Penhale, B., Görden, T., Biggs, S., & Han, D. (2010). Elder abuse: An international narrative. *Journal of Elder Abuse & Neglect*, 22(1), 131–163.